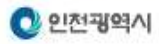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
배포일자		2021년 3월 26일(금) 총 3매		
담당 부서	소통기획담당관	담당자	• 홍보콘텐츠담당 김진국 ☎ 440-8301 • 담당자 정경숙 ☎ 440-8305	
<b>보 도 일 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“<굿모닝인천> 시민이 직접 읽어 드립니다”

- 시민이 참여 낭독하는 기사 음성지원서비스 개시 -
- 취재 현장 영상, 웹진 뉴스레터 서비스도 호응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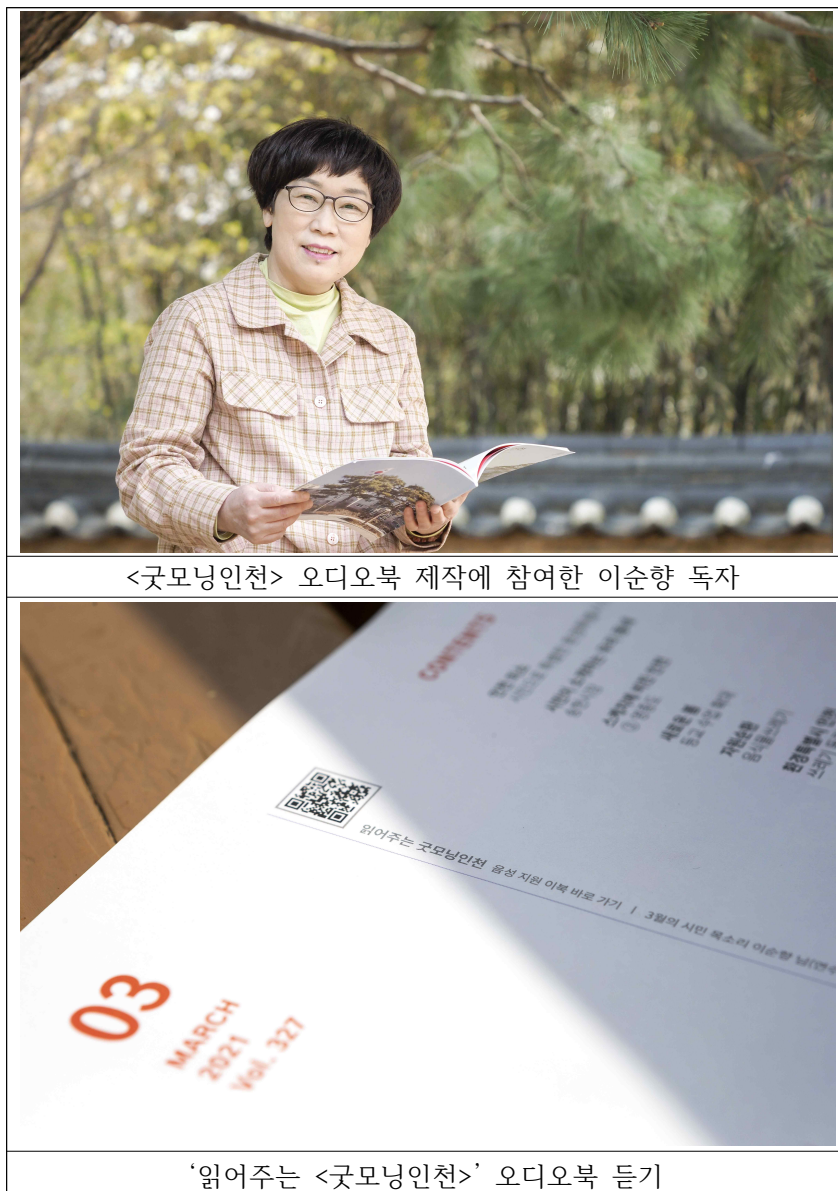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발행하는 종합매거진 <굿모닝인천>이 오디오북의 주인공을 인천시민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. 오디오북은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<굿모닝인천>에 게재된 기사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.
- <굿모닝인천> 오디오북에 연결하려면 잡지 3페이지 상단에 있는 ‘읽어주는 굿모닝인천(음성지원 이북 바로가기)’ QR코드를 모바일에 인식시키면 된다.
- 이번 시민낭독 음성서비스 개시는 지난해 기계음과 홍보대사들이 하던 음성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로 대체하며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.
- 4월호(통권 328호)에선 ‘인천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’ ‘지구의 날, 환경특별시 인천의 환경보호 실천법’ 등 다양한 내용을 시민의

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. 낭독에 참여했던 시민의 인터뷰 기사도 만난다.

- 음성지원 서비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정홍보 소식지를 제작한다는 참여의식과 시민과 시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.
-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이순향(연수구 청학동) 씨는 “내 목소리로 독자들에게 역사, 문화, 경제 등 인천 이야기를 들려주니 행복했고 보람 있었다” 고 말했다. 다른 참여자 최지혜(계양구 효성동) 씨는 “인천시 대표 월간지 <굿모닝인천> 제작에 참여하며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” 고 말했다.
- <굿모닝인천>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할 시민은 매월 지면공고를 통해 모집하며, 선정된 독자는 <굿모닝인천> 음성 파일을 녹음해 MP3로 저장 후 메일(goodmorningic@naver.com)로 보내면 된다.
- 이와 함께 기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서비스, 전체 기사 내용을 보기 편하게 웹진으로 정리해 독자에게 보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.
- 백상현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은 “<굿모닝인천>은 지난해 1월부터 오디오북 서비스와 함께 취재 영상 제작 후 SNS와 지면 QR코드 연계, 웹진의 뉴스레터 서비스 등 온라인 영역을 확장하며 시민 곁에 다가서 왔다” 며, “앞으로 매체 제작에 시민 참여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” 고 말했다.

- <굿모닝인천>은 무료이며 구독신청은 웹진([goodmorning.incheon.go.kr](http://goodmorning.incheon.go.kr))과 전화(032-440-8306)로 하면 된다. 메일([goodmorningic@naver.com](mailto:goodmorningic@naver.com))로 신청하면 뉴스레터도 보내준다.
- <굿모닝인천>은 1994년 1월 <내고장인천>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회 연속 한국사보협회가 주는 ‘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’을 수상했다.

## <붙임> 사진자료



<굿모닝인천>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이순향 독자

‘읽어주는 <굿모닝인천>’ 오디오북 듣기